

— Sat-3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 발생한 급성 비결석성 담낭염 1예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¹, 방사선과학교실²

윤병갑*, 박인서¹, 전용선², 이진우, 정석, 이정일, 권계숙, 이돈행, 김범수, 김형길, 신용운, 김영수

배경: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ERCP)은 췌장 또는 담도 질환에 있어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용한 검사 방법이다. ERCP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흔히 췌장염, 담도염, 심이지장 천공, 출혈 등이 있는데 발생 빈도가 낮고 대부분 경미하나, 드물게는 담낭염과 같은 생명을 위협할 만한 중증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 후에도 면밀한 관찰을 요한다. 저자들은 총당관 결석 환자에서 ERCP를 시행하여 결석을 제거한 후 합병증으로 급성 비결석성 담낭염이 발생하여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례: 52세 남자가 내원 2개월 전부터 간헐적인 우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와 복부전신화단층촬영에서 총당관결석이 발견되어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신체검사에서 복부에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었고 간과 비장은 촉지되지 않았다. 말초혈액검사상 혈색소 15.1 g/dL, 백혈구 5,700/mm³, 혈소판 185,000/mm³이었고 혈청 생화학검사에서 총발리루빈 0.5 mg/dL, AST 35 IU/L, ALT 55 IU/L, 총단백 6.7 g/dL, 알부민 4.0 g/dL,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108 IU/L이었다. 내시경초음파검사에서 담낭은 확장되어 보였으나 담낭벽의 비후 및 담낭 내 결석이나 담즙찌꺼기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총당관 내에 1.5 cm와 0.6 cm 크기의 결석 두 개가 발견되어 ERCP를 시행하였다. 담관조영술에서 경도의 간내담도 및 간외담도 확장과 총당관 내에 충만결손들이 관찰되어 내시경적 팔약근절개술을 시행한 후 결석 제거용 바스켓으로 결석을 제거하였다. 시술 후 환자는 상복부에 압통과 반발통이 있고 체온이 39.7°C까지 상승하며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12,200/mm³, 호중구 95.1%, 혈청생화학검사에서 아밀라제와 리파제는 정상이나 총발리루빈 6.1 mg/dL, AST 318 IU/L, ALT 400 IU/L로 증가하였다. 이때 시행한 복부전신화단층촬영에서 담낭과 간외담도 내에 조영제의 저류 이외 특이 소견 보이지 않고 환자가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행하여 응급으로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에서 담낭은 크게 팽창되어 있었으며 천공의 육안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복강 및 골반강 내에 많은 양의 고름 같은 액체가 고여 있었고, 담낭의 내부가 출혈과 함께 고름으로 차워져 있어 급성 비결석성 담낭염과 담낭농양으로 진단하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9일째 T자 도관을 통해 시행한 담관조영술에서 담관에 잔류결석은 보이지 않았고, 환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14일째 퇴원하여 현재 특별한 문제 없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 Sat-4 —

저분자량 혼합으로 치료한 급성 췌장염에 동반된 간문맥 혈전증 1예

을지의과대학교 내과 고훈*, 정성희, 윤상정, 김안나, 선병민, 최기영, 김준형

간문맥 혈전증은 문맥압 항진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간경변증, 종양, 복강내 감염 및 염증질환, 혈액학적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급성 췌장염에 병발하는 간문맥 혈전증은 약 3~5%로 드물며 혼합의 정맥투여 및 경구 항응고제를 이용한 항응고요법으로 혈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문맥압 항진증의 발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저분자량 혼합(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은 비분획성 혼합과 효과가 비슷하며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 있어서 출혈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저분자량 혼합으로 급성 간문맥 혈전증을 치료한 예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위궤양으로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 췌장염에 동반된 급성 간문맥 혈전증을 저분자량 혼합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45세 남자가 다량의 음주 후 3일간 지속된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9,900/mm³, 혈색소 15.9g/dL, 혈소판 189,000/mm³, AST/ALT 76/50 IU/L, 총발리루빈 1.5mg/dL, protien 6.8g/dL, albumin 3.7g/dL, alkaline phosphatase 161 IU/L, amylase 189 IU/L, lipase 187 IU/dL, BUN/Cr 8/0.9 mg/dL, glucose 142 mg/dL, Ca 8.3 mg/dL, LDH 598 IU/L, protein C 72%, Protein S 110%, Antithrombin III 22.5 mg/dL였다. 복부 전신화단층 활영상 췌장 미부에 부종이 관찰되고 췌장주변의 지방침윤 및 골반강에 산출물의 저류가 관찰되고 간문맥에 혈전이 관찰되었다. 내시경 소견상 위궤양, 식도 정맥류가 관찰되었다. 저분자량 혼합(exenaparin) 1mg/kg 하루 2회 피하주사 하였으며 14일 후 시행한 복부 전신화 단층활영에서 간문맥 혈전증은 소실되었고, 위내시경 상 식도 정맥류도 소실되었다. 환자는 증상 호전되어 퇴원 후 경과 관찰 중이다.